

서남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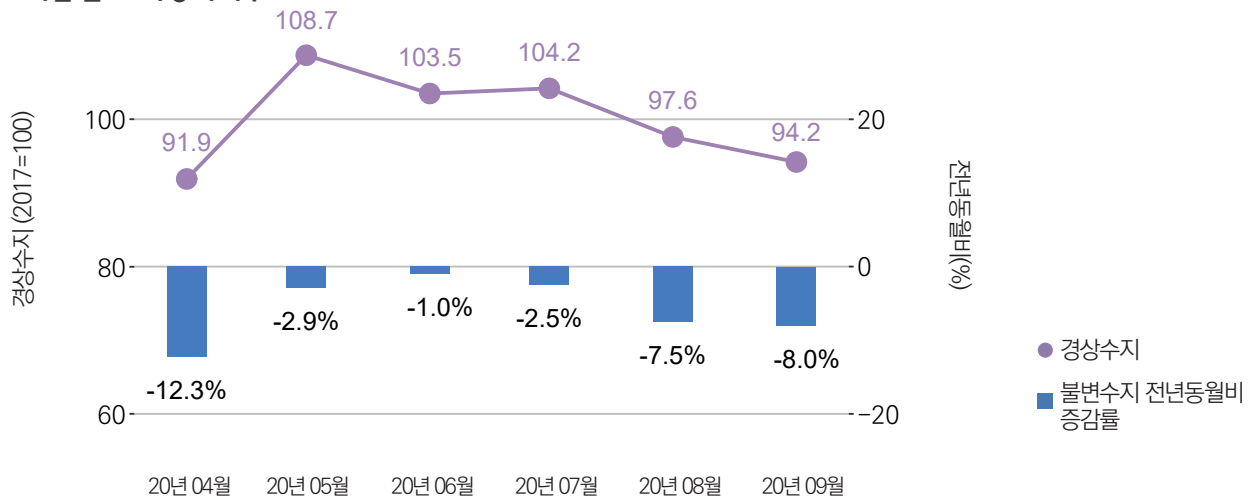
•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8.0% 하락. 서울 권역 중 그나마 가장 양호한 수준

- 전년동월대비 -8.0% = 소매업의 기여도 +3.2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11.2%p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[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](#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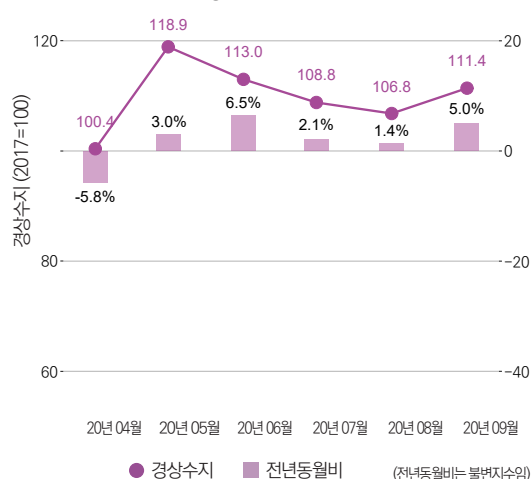
•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경기지수 5.0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경기지수 30.9% 하락

- 음식료품, 연료, 기타가정용품 매출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고, 종합상품, 기타상품, 의복·섬유·신발 등의 매출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9월 서남권 소매업 경기지수는 전월(1.4%)보다 높은 5.0%를 나타냄
- 9월 서남권 소매업은 가전제품·정보통신, 무점포소매, 음식료품, 연료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- 반면 의복·섬유·신발, 문화·오락·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감소
- 서남권은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주점·커피전문점 등의 업종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, 그나마 서울 권역 중 숙박·음식점업 경기지수 내림폭이 가장 적음
- 9월 서남권 숙박·음식점업은 소비증가 업종 없이 주점·커피전문점, 숙박, 음식점업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감소

| 서남권 소비경기지수 |



| 서남권 소매업 경기지수 |



| 서남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|

